

2014년 주력산업 전망

주요 기관의 내년도 경제전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별로 3.7%~4.0% 수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경제가 올해보다는 회복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OECD는 미국 정부의 재정관련 리스크와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등의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최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2014년 국내 주력산업 전망을 내놨다. 선진국의 실물경기 개선과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올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제조업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정보통신, 가전, 자동차 등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며 성장세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권 주력산업은 업종별로 온도차를 보일 전망이다. 기계, 자동차산업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국내 설비투자 증가 및 내수회복 등으로 수출과 생산 등에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중국의 수요 둔화, 신흥국 설비증설에 따른 철강 공급과잉 확대, 철강제품 단가 약세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부진할 전망이다. 조선산업도 수년간 지속된 해운시황 침체와 선박발주 축소 영향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며 최근의 선가지수 상승, 발주량 확대 등에 따른 업황 개선의 실현 시기는 201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품목별 수출 실적도 상이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의 여건변화 및 기술혁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관련된 기업들의 경영성과는 내년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14년 주력산업 수출 호조·부진 예상 품목 ■

구분	수출 호조 예상 품목	수출 부진 예상 품목
철강	전기강판, 도금강판, 연강판	후판, 열연강판
기계	기체 여과기 등의 공조 설비용 기계 운송장비, 산업용 로봇 등 생산자동화 기기	섬유기계, 머시닝 센터 등 공장기계 플랜트 관련 부품 및 기자재
자동차	SUV, 변속기 및 브레이크 관련 부품 전장 부품	새시관련 부품 등
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PC선, 드릴쉽, 가스선(LNG선, LPG선) 고효율 친환경 엔진 및 기자재	유조선, 벌크선

자료 : 산업연구원

디지털뱅크의 세번째 도전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플릿PC 등)의 확산과 기술적 진보 그리고 온라인뱅크 보안에 대한 고객 인식 개선으로 디지털뱅크 제3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 프랑스계 은행 BNP파리바가 설립한 모바일은행인 헬로뱅크(Hello Bank)는 '은행을 모바일 속으로' (Now you can have your bank in your mobil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미국의 모벤뱅크(Moven Bank), 핀란드의 홀비(Holvi) 그리고 러시아의 로켓뱅크(Rocketbank) 등도 헬로뱅크처럼 모바일금융에 기초한 3세대 은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wingspan(윙스팬), 에그(Egg)와 같은 온라인 전용 은행이 생겨났지만 기술적 문제와 고객들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그 후 2000년대 중반에는 무점포은행 모델을 고안해 시장에 자리잡은 ING Direct 등이 온라인을 통한 상품 가입 시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거래 고객들을 유인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헬로뱅크 등 3세대 디지털뱅크는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의 거래 현황을 종합 점검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금융서비스도 시도하고 있다. 해외은행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뱅크 이용 고객 증가로 점포수를 점차 줄이는 추세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점포수를 줄이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 모바일금융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점포를 개설하고 있다.

부산은행도 최근 장전동 및 광남 지점 내 스마트브랜치인 B-스마트 스퀘어(Smart square)를 설치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선진 금융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11월 9~15일)는 온라인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출과 같은 고수익 상품 판매가 가능하고 고객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단지 젊은 세대에 어필하는 흥미로운 실험에 불과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세번째는 성공한다' (Third time lucky)라는 영국속담이 실현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채권금리 소폭 상승

→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가 16거래일 연속 이어지며 가격 하락

▶ 코스피 5거래일 만에 2000선 하회(11월 21일 코스피지수 : 1,993.8)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중국 경제지표 하락으로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확대되며 지수 하락

▶ 엔화 약세

→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로 엔화 약세 시현

● 금리

	2012년말	2013. 9월말	2013. 10월말	11/15	11/18	11/19	11/20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66	2.65	2.65	2.65	2.65	2.65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7	2.66	2.70	2.69	2.70	2.70
국고채(3년)	2.82	2.82	2.82	2.94	2.94	2.95	2.96
회사채(3년, AA-)	3.29	3.24	3.24	3.37	3.37	3.39	3.39
회사채(3년, BBB-)	8.80	8.97	8.99	9.10	9.10	9.11	9.12

● 주가

	2012년말	2013. 9월말	2013. 10월말	11/15	11/18	11/19	11/20
KOSPI	1,997.1	1,997.0	2,030.1	2,005.6	2,101.8	2,031.6	2,017.2
애플	13,104.1	15,129.7	15,545.8	15,961.7	15,976.0	15,967.0	15,900.8
니케이225	10,395.2	14,455.8	14,327.9	15,165.9	15,164.3	15,126.6	15,076.1
상하이종합	2,269.1	2,174.7	2,141.6	2,135.8	2,197.2	2,193.1	2,199.3

● 환율

	2012년말	2013. 9월말	2013. 10월말	11/15	11/18	11/19	11/20
원/달러	1,071.1	1,073.0	1,059.5	1,063.5	1,057.0	1,054.5	1,057.5
원/100엔	1,247.5	1,096.0	1,078.4	1,060.1	1,057.9	1,057.6	1,056.8
원/유로	1,416.3	1,449.5	1,452.7	1,431.5	1,426.6	1,425.7	1,432.1
원/위안	171.9	175.3	173.9	174.6	173.5	173.1	173.6
엔/달러	85.86	97.97	98.31	100.19	99.90	99.98	99.86